당뇨수감자들의 권리회복을 위해

필라델피아 클럽의 주인이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와서 그의 얘기를 털어놓았다. 그는 술에 취해 싸움을 한 죄로 체포된적이 있다. 그는 인슐린 펌프를 사용한다. 그는 체포한 경찰관과 감옥 관리관에게 그는 당뇨병환자이므로 약과 음식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그는 아무것도 제공받지 못했다.

처음에 그의 혈당이 급격히 떨어졌다. 다른 칸에 있던 사람이 그를 위해 도움을 요청했다. 그에 의하면 경찰관의 반응은 "그다지 나빠 보이는 컨디션은 아닌 것 같군. 이 사람이 기절하면 다시 불러." 라는 식이었다고 한다. 스티브 로젠은 한참 후에나 음료수를 통해 당분을 섭취할 수 있었다. 그로부터 2시간 후, 그의 펌프에서 인슐린이 떨어졌다. 그는 감옥 관리관에게 말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결국 23시간의 감금 시간과 12시간의 인슐린 부족의 시간을 가진 후에 로젠은 겨우 경찰관에게 그가 의학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을 확신시킬 수 있었다. 그는 응급실로 수송됐으며 그의 혈당은 446에 이르고 있었고 혈압 또한 200/120으로 심각한 상태였을 뿐 만 아니라 산성증의 증세도 보이고 있었다.

제 1형 당뇨병이라는 병에 대해 잘아는 사람들은 로젠이 당한 일에 관해 알게 되면 놀랍기도 하고 분노도 느낄 것이다. 그리고 알랜 앳빈 변호사는 당뇨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놀라지 않았다. 왜냐하면 앳빈 변호사는 비슷한 경우를 담당했던 적이 있기 때문이다.

필라델피아의 역사

1982년에 실수로 구속이 되었던 어떤 당뇨병환자가 저혈당으로 고생을 한 후 고소했던 사건의 결과로 필라델피아 시 정부는 경찰과 관계자들에게 당뇨병의 심각성을 알리고 당뇨병환자 대치법을 교육하는 등의 보안을 하기로 동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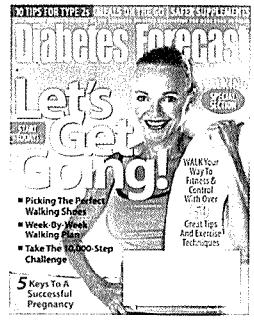
그러나 1987년, 제 1형 당뇨병환자인 베티 진 데이비스는 당뇨 인식 팔찌를 착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4시간 동안 인슐린을 제공받지 못했다. 보석금을 지불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녀는 쓰러졌으며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경찰의 허점을 잘 알고 있던 앳빈은 데이비스의 입장을 대신하여 소송을 걸었다. 그 와중에 경찰당국에서 당뇨병에 관한 어떠한 교육도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1997년 앳빈은 또 다른 사건을 맡게 됐다. 제 1형 당뇨병환자인 지비그뉴 카자는 경범죄로 체포되었다. 그러나 그는 인슐린의 제공없이 48시간 구속되었고 그 결과, 산성증으로 발전되어 24시간 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카자는 시 정부를 고소했고 합의 조건 중 하나로 경찰에 수감되어 있는 모든 당뇨병환자의 관리를 제대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그들은 모두 경찰관에게 본인이 당뇨병환자 임을 밝혔음에도 인슐린이나 약, 음식을 제공받지 못했으며 그 결과로 모두가 다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출처 : Diabetes Forecast



그러나 데이비스의 경우를 보면 그 시정부의 약속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하다. 또한 카자의 고소의 합의조건이었던 모든 경찰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당뇨교육 및 테스트를 하겠다는 약속 또한 실천에 옮겨지지 않고 있었다. 그것은 지금 앳빈이 듣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거의 동일한 경험을 한 로젠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때 나는 시스템적인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앳빈은 말했다. "데이비스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전체적으로 변화가 일어났어야 했고, 카자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는 단지 그 변화에 따른 문제점이 지적되었어야 옳습니다." "저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식의 부분적인 접근으로는 이 일을 해결할 수가 없으므로 이번을 이 문제점을 완전히 바로 잡기 위한 기회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앳빈은 데이비스나 카자의 경우와 같은 간단한 소송이 아닌 집단 대표 소송, 즉 공동소송을 하기로 결심했다.

미래의 희생자

앳빈은 집단 소송의 고소인을 위의 7명과 그리고 추후 필라델피아 시 정부에 의해 구속 시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당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는 사람들의 대신이라고 표명했다.

앳빈은 과거에 그런 문제를 겪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일은 쉬울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나 시정부 자체에 변화를 일으켜서 모든 경찰부서에 당뇨병 교육을 시키고 그것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게 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알고 있었다. 그것을 위해서 앳빈은 미래의 피해자를 선정해야 했는데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미래에 의료적인 도움이 필요하면서 구속될 만한 일을 저질러서 비슷한 경험을 하겠다는 사람을 법원에 내세울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앳빈은 그런 일들을 감지할수 있는 사람들을 찾았다. 그것이 바로 미국당뇨협회에 고소인이 되기를 요청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미국당뇨협회는 전국적으로 40만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필라델피아 지역 내에서만도 13만 5천명의 당뇨병환자를 대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다시 말해 미국당뇨협회는 추후 필라델피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당뇨환자 구속의 피해자를 대신해서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협회는 소송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던 적

은 거의 없었다. 그동안은 글을 통한 참고문 정도의 역할같은 소극적인 참여를 하던 협회는 이번 사건에 같이 참여하겠다고 동의를 한다면 하나의 고소인의 입장이 되는것이다.
미국당뇨협회는 2가지의 이유로 이 집단 소송에 고소인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하나는 앳빈과 루도브스키에게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다. "그들은 최고의 변호사들입니다." 이번 소송에 전담하기로 한 미국당뇨협회 이사장인 미셸 그리니는 말했다.

자격은 하고 있으나 대책은 아직 없다

피트레스 터커 판사는 이 소송이 과거에 피해를 본 사람들과 향후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2가지의 집단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과거 피해를 본 대상자들을 1998년 2월 11일과 2001년 3월 31일 사이에 필라델피아 경찰에 의해 구속이 된 사람들 중 적절한 시간에 맞춰 적절한 음식이나 약을 제공받지 못한 사람들로 구분했다.
이러한 사람들을 찾기 위해 앳빈은 경찰 구속 자료를 참고했다. 법에 의하면, 구속되는 모든 사람들은 당뇨에 관한 내용에 포함된 의학관련 질문서를 작성하게 되어있다.

그 3년간의 기간동안 질문지에 당뇨환자임을 밝힌 4천명도 더 되는 체포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메일을 써서 보냄으로써 앳빈은 275명의 고소인을 더 확보할 수 있었다. 한 68세의 할머니는 아무런 과거 체포경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약을 팔던 이웃의 거짓진술에 의해 체포된 적이 있었다. 그녀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음이 밝혀졌을때는 이미 제 2형 당뇨병환자인 메리 엘렌 존스의 감금시간이 30시간이 넘어가고 있었다. 물론 약물제공 없이 말이다.

앳빈과 루도브스키는 2가지의 집단 소송에 모두 참여하였고 약 2년간의 법정 싸움끝에 루도브스키는 모건 루이스 LLP라는 큰 집단 소송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들은 미국당뇨협회의 입장을 무료로 대표하기로 결정하고 3명의 변호사를 파견해 주었다. 그 3명의 변호사의 300시간 이상의 변호사 시간을 사용한 후 이 집단소송은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었다.

협의사항

결국 지난 3월, 판사와의 여러 번의 공방을 통해 고소인들은 협의점에 도달했다. 그 중 하나는 지난날 잘못된 시정부의 정책으로 피해를 본 고소인에게 각 200불에서 5천불을 지불하라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미래의 피해자에 관한 협의로는 구속된 당뇨병환자들에게 적절한 약과 음식, 의료진이 제공될 것과 경찰관계자들의 당뇨 교육을 강화시키는 것이었다. 그 협의는 협회로 하여금 감시자 역할을 할 수도 있게 만들었다.
경찰관계자들의 체계적인 당뇨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앳빈이 더 이상 이 관련 피해자들을 대신해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 그는 이 문제가 과거에 언제나 무시되어 왔고 등한시 되어왔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발생했었다고 느껴왔다.
"사람들은 당뇨라는 병에 관해 잘 모릅니다." 그는 말했다. 그러나 아마도 지금쯤은 필라델피아 시정부는 알았을 것이다.